



# 비대칭에 비밀 있었네

손연철 교수가 청동불로 재현한 '석굴암 본존불'

## 손연철 교수 석굴암 본존불 재현 11월 3일 '제20회 불교미술대전'서 발표

석굴암 본존불은 고도의 과학적인 제작기법과 빼어난 조각미로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여년전부터 보존사업 시작으로 롯데월드 모형관 등 적지않은 사찰에서 본존불을 기본으로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모작됐다. 하지만 본존불은 과학적이고 독특한 조형기법으로 만들어져 완벽한 재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10회 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손연철 교수(56·동국대 미술학부)는 재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본존불이 '좌우 비대칭 구조'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재현 발표에 눈길을 끌고 있다.

크기(높이 125cm) 등 원형 그대로 재현된 손 교수의 작품은 화강암 대신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위풍당당한 자세와 상호의 원만함을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은 철저히 좌우 비대칭으로 조성돼 각기 상반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기법으로 제작된 본존불 재현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1백여회가 넘게 석굴암으로 올라가 본존불을 감상하고 사진 촬영

을 한 손 교수는 본존불이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릎 좌우 크기와 높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깨 높이고 넓이, 귀의 높이고 크기, 머리 나발도 좌우의 나발 숫자와 양감의 표현에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상호에서도 이마의 높이고 넓이가 좌우측이 서로 다르며, 눈썹의 휘는 각도와 길이뿐만 아니라, 눈의 크기와 눈동자의 표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 볼에 흐르는 선과 양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계 어떤 불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석굴암 본존불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손 교수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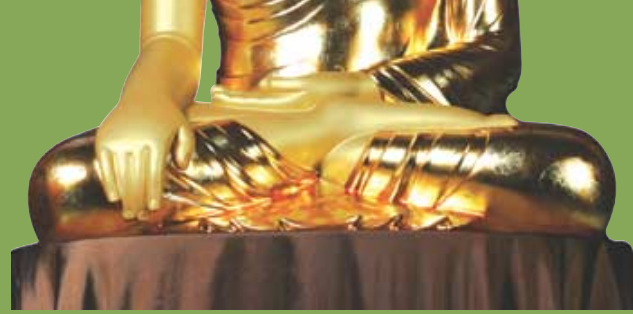
본존불의 재료가 단단한 화강암이기 때문에 조각하기 어려워 비대

## 1백여회 답사, 2년여 작업... 원형 그대로 '미소' 표현 가장 힘들어... 화강암 재현도 계획 중

칭 구조로 제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손 교수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본존불은 한마디로 완전성, 완벽성을 뛰어 넘는 최고의 결정체로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선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 걸작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재현이 이루어 졌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좌우 비대칭의 특수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손 교수는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손 교수도 본존불이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수십번씩이나 재현에 실패했다. 제작 기간이 2년씩이나 걸



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손 교수가 이번 작품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일 듯 말 듯한 본존불의 '자연스러운 미소' 불보살상의 원만한 상호는 지혜스런 표정과 함께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동시에 띠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표정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재현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기존의 미술사적 실측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져 오직 사진에 의존해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손 교수는 앞으로 컴퓨터 실측을 통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존불의 원래 재질인 화강암 재현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이번 손 교수의 석굴암 본존불 재현 발표 작품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 20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6-1020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송강 스님 영산 법패 발표회

## 제자 24명과 함께 공연

송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 육보조재)의 '영산법패 발표회'가 11월 7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

공연은 패불을 옮겨 걸어 영산회상을 상징화하는 패불이운(佛移運), 불단(佛壇)에 권공예배를 드리는 상단권공(上壇勸供), 불교식 식사예법으로 공양(公良)의 공덕을 일깨우는 식당작법(食堂作法), 천수바라, 법고, 다게 손으로 진행되며 '회정'으로 회향한다.

상주권공(常住勸供)이나 각배제(各拜齋)에서는 관음시식(觀音施食)을 하는 데 비해 영산재에서는 식사 의례를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했던 법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 이래 영축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발전해 왔다. 음악과 무용, 미술이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종합예술로 꼽히는 영산재는 근대에 들어서는 신촌 불원사를 중심으로 전승됐다. 지난 30년 동안 영산재 전승의 중심 역할을 하던 인간문화재 보유자 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제 1세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일운 스님이 지난해 입적함으로써 이제 영산재는 완전한 세대교체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구해·일운·기봉 스님과 함께 준보유자중 하나인 송강 스님이 제자 24명과 함께 펼치는 이번 공연은 의미가 남다르다.

송강 스님은 "스승인 송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문화 유산인 법패를 전승시킴은 물론 대중화 시키는데 일조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02)580-3300

김주일 기자

부처님이 광영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 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비릿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북 043-647-2378, 011-467-1472**

열대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mangosteen

수입개시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 이라고 불리웁니다. 마늘처럼 생긴 과육은 향기가 있고 새콤달콤하여 열매 중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뛰어납니다. 망고스틴은 두리안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드시면 두리안의 특이한 향이 의식됩니다.  
가격: 1박스 4.5KG(45개~50개들이) **90,000 원**

망고스틴을 드시는 방법  
과일의 중간지점을 손끝으로 눌러서 틀리신 다음, 약간 비틀면 잘 따집니다. 지주색 껍질 안에 눈처럼 새하얀 과육이 숨어 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E-Mail: durian1357@hanmail.net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예금주 조영숙)

과일의 왕 **두리안**  
부처님도 즐겨드셨습니다  
강장효과가 뛰어난 과일의 왕  
**DURIAN**

가격: 3kg 35,000원  
6kg 60,000원  
12kg 120,000원

두리안과 망고스틴은 가장 상식하고 당도가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영하 40도에서 급냉보관하여 수입하므로 원산지맛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www.durianshop.com**